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7월 10일 성삼위일체 후 4주일[연중 15주일] · 다해 · 녹색

제57-27호

신앙인 — 낯선 자의 이웃

(루가 10:25~37)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릴까요?” 몇 주 전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 동네에서 냉대를 받자 제자들은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거절당했다 해서,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해서, 어느 집단을 멸절하는 일은 신앙의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복음의 주인공인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사람의 선입견과 종교적인 우월감은 편견과 단견으로 미끄러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신앙인은 진실의 큰 바다에 자신을 열어 놓고, 필요한 때에는 거리낌 없이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종교의 율법과 세상의 법률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약속양식이라는 동물의 질서는 사람살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르다는 뜻으로 만든 보호장치입니다. 성서에 나오는 못된 몇몇 율법학자나, 세상 뉴스에 오르내리는 몇몇 탐욕스러운 법률가들과는 달리,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율법 교사’는 매우 정직합니다. ‘율법’의 근거에 충실하고, 사건을 설명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와 논리를 귀담아듣고, 바른 결론으로 응답합니다. 여기에 편견이나 억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심하게 다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사제와 레위 사람은 본 척도 안 하고 피해갔지만, 더러운 이방인이라고 차별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끝까지 도왔습니다. 직책이 보여주듯이, 사제와 레위 사람은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종교는 법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 특히 ‘영원한 생명’의 일에 관여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종교의 영원한 생명’과 ‘현실의 사람 생명’을 서로 연결하지 않고 분리하여 취급합니다. 자기 소원을 성취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바쁜 발걸음은 쓰러져 아파하는 이웃을 살피볼 눈길을 막아버리곤 합니다.

이때, 하느님은 누구나 당신의 일꾼으로 쓰십니다. 사람의 지위와 직책, 출신과 재산을 넘어섭니다. 뜻밖의 낯선 사람, 오히려 편견의 대상이었던 사람 안에서 펼쳐지기도 합니다. 사제와 레위 사람은 그 이름에서 이미 관습과 기득권이 물씬 풍기지만, 강도 만난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도 직책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종교와 교리, 사회와 통념으로 나누거나 판단할 수 없는 낯선 사람입니다.

오직 측은지심의 눈길과 손길만이 세상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이어줍니다. 완전히 실패한 인생의 탕자를 품는 아버지의 손길, 배고픈 이들을 측은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의 눈길은 이름 없는 이들에게 배불리 먹고도 넘치는 잔치를 베푹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은 귀한 포도주로 쓰러진 사람의 통증을 완화하고 소독한 뒤, 비싼 기름을 발라 상처의 감염을 막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온전히 회복하려고 돈 드는 사후조처까지 마련합니다.

이 모든 자비의 행동은 하느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손길을 타고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으로 겹칩니다. 측은지심의 시선과 행동이 하느님의 구원 행동입니다. 교회와 신앙인은 이 구원 행동을 몸소 펼치는 하느님의 도구입니다. 신앙인은 세상 곳곳에서 쓰러진 이들을 깊은 연민으로 보살피는 낯설고 약한 이들의 이웃입니다.

(주낙현 신부)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 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 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 회장 김종희 요셉
사제 회장 차기성 안드레

교회위원 구정에 변금숙 서남철 신한중 이성식 이평환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룡 윤희호 송갑호 추형두 이충웅 이용혜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혜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경희 이난희 이광자마리아

■ 전례와 사목

1. 성삼후시기(연중시기) 전례 안내

성삼후시기 전례곡 C곡: 영광송(성가 81장),
거룩하시다(성가 82장), 하느님의 어린 양(성가 83장).

2. 평일 아침 성찬례 안내

화·수·목·금 아침 6시 30분 성전
※ 금요일 아침 미사 후에는 간단한 다과 시간을 갖습니다.

3. 교우 주소록 갱신과 수정

수정안이 성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으니, 구역별로 다시 확인
하여 주시고 수정 사항이 있으면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알림

1. 7월 교회위원회 의결사항

- 성당 환경 개선 (가건물, 성전, 성당 정면 파사드) 실무팀 구
성과 공사 진행 (사목단, 신자회장, 관리위원, 재무위원)
- 성당 환경 개선 특별 선교 헌금 캠페인 (서신 발송 예정)
- 새교우 환대를 위한 안내팀 구성 진행
- 교무구 어린이 여름 캠프 봉사 지원 요청

2. 강남교무구 어린이 여름 캠프

일시: 7월 23일(토) 오전 10시 ~ 24일(주일) 낮 12시, 우리 성당

3. 전례 영상 봉사자 모집

전례 실시간 영상 송출, 촬영, 편집을 도울 봉사자를 모집합
니다. 관련 교육을 사전에 제공합니다. (문의: 구균하 신부)

4. 영등포 성당 소개 인터넷 서비스 링크와 QR 코드

성당 소개 링크 웹사이트(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현재 수정 중).

주소: linktr.ee/st,chris,church



■ 활동단체 소식

◆ 나옴교회 월례 모임 7월 10일(오늘) 11시 성찬례 후 나옴방

◆ 모니카회 월례 모임 7월 10일(오늘) 11시 성찬례 후 모니카방

◆ 어머니회 선교기금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7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2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쌀보리 2kg 7천원

■ 교우 소식

◆ 입퇴원 환자 특별 기도 요청

서세룡 마가 (입원 중), 이순환 모이서 (퇴원 후 가료 중)

※ 헌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
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고아랑 박은영 김진수 김영대 김영해 김종희 김태영 송미정
신명식 심순덕 오현희 우영현 유인환 유해상 윤희주 윤길자
윤범기 윤선구 윤영옥 윤지훈 이용해 조진성 차영호 추형두
한재업

■ 주정헌금

김경아 김경찬 김요한 박남미 송미정 송미정 신희숙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이경희 이성빈 이은미 이자영 이종한 정은숙
주창남 주창순 한부순 홍성호

■ 감사헌금

고창덕(생일) 윤길자(퇴원/이순환생일)
윤용길 윤형기 윤상기(윤종현 세례)

■ 맥추감사헌금

강서린 강현모 고흥 박은영 김복자 김삼홍 김영대 김영해
김용학 김재엽 김재현 김종희 김진선 박계자 박영수 박해웅
변금숙 변진선 서남철 선병순 송미정 송미정 신명식 심주민
오현희 우영현 유윤근 유인환 유해상 유호애 윤길자 윤선구
윤영옥 윤영자 윤옥랑 윤용환 윤지훈 이경희 이난희 이복련
이용해 이은미 이정숙 이종한 이충웅 전병도 전애은 정상임
주낙현신부 주애다 주창순 차기성 차영호 최효은 추형두
한재업 함옥순 무명5명

■ 기타헌금(미사 헌금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나눔의집헌금

주창남

대한성공회 영등포교회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 · 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강남교무구
여름캠프**

서로 사랑해요

7월 23일(토) 오전 10시 ~ 24(주일) 낮 12시
영등포성당

모두
함께 떠나요~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함께 회복하는 아름다운 전례

우리 영등포 성당은 이제 회복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신앙과 전례와 교회 선교 안에서 이 회복 운동은 우리 삶을 복되게 하며, 세상에는 신앙의 아름다움과 신뢰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 안에서 성공회 전통은 <감사성찬례>를 드리며 우리 신앙을 빚어냅니다. 주일 예배인 <성찬례>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예배이며, 하느님 안에서 한몸이 되는 신비를 축하하며 누리는 교회의 거룩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예배를 ‘전례’(liturgy)라고 하는데, ‘공동체의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려면 언제나 예절이 필요합니다. 전례는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예절의 훈련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점차 예절이 사라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전례 예절로 자신을 훈련하여 세상에 신앙의 품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전례 예절’을 잘 지켜서, 교회가 이루는 아름다운 환대와 친교를 잘 드러내야 하겠습니다.

1. 전례가 시작되기 전

- 전례 시작 10분 전까지 성전에 들어와 제대 가까운 자리에 앉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 감사성찬례 시작 전 조용하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 예배 헌금은 미리 준비하여, 성전 뒷편에 있는 헌금함에 넣습니다.
- 성전 안에서는 사사로운 대화나 소음을 내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 휴대폰 벨이 울리지 않도록 전원을 끕니다 (하느님은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전화를 걸지 않으시니까요.)

2. 전례가 시작되면

- 전례가 시작되면 신문이나 다른 소식지를 보지 않습니다. 주보의 경우, 전례 순서만 참고합니다.
- 전례 시작 후에는 중앙 통로를 이용하지 않고, 옆 통로를 이용합니다.
- 늦게 오더라도, 전례 순서(독서, 기도 등) 진행 중에는 통행하지 않고 입구에서 잠시 기다립니다.
- 자리를 찾을 때는 예배 순서와 순서 사이에 움직입니다.
- 성가와 계응은 큰소리로 함께 합니다.

3. 전례를 마칠 때

- 전례가 모두 끝난 후에 후주도 끝까지 듣고 나갑니다. (후주 후에는 성가대의 수고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 성전 뒷편에서 성직자와 인사를 나눕니다.
(상세한 안부와 문의는 교우들과 인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린 후에 나눕니다.)
- 친교 공간(성당로비와 다목적홀)에서 교우들과 서로 안부를 물으며 친교를 나눕니다.
- 처음보는 새로운 교우에게는 먼저 자기 이름이나 신명을 소개하고 환대합니다.
- 주보는 집에 가져가서 주중에 참조하거나 이웃에게 전도지로 활용합니다.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이현숙
채옥순 최종주 신희숙 신정자 유호애 김복근 민병화 이순환

■ 임 신 정셋별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 유 학 이재성(독일)

■ 장지출장

박지혁 김승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새교우

김두식 안소영 김진선 강가라연 김사라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67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45 다함께
영광송(C곡) ✧ 246 / ♪ 81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영원하신 하느님, 성자를 통하여 사랑이 올법의 완성이라 가르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인도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신명 30:9-14 말은이
시편 시편 25편 다함께



1 주여, 내 영혼이 당신을 우러러 | 뵈오이며
○ 나의 하느님, 당신만을 | 믿습니-다.
2 그러므로 부끄러운 꼴 당하지 않게 | 하시고
○ 원수들이 으스대지 못|하게| 하소서.
3 당신만을 믿고 바라면 망신을 당하지 | 않으니,
○ 당신을 함부로 배신하는 자 수치를 | 당하|리이다.
4 주여, 당신은 바르고 어지시기에
○ 죄인들에게 길을 | 가르치시|고
5 겸손한 자 옳은 길로 인도|하시며
○ 그들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십니다.
6 당신의 계약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 당신의 모든 길이 사랑이며 | 진리|입니다.
◎ 영광이 |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아-|멘
2 독서(읽는다) 골로 1:1-14 말은이
총계 성가대 특송
복음환호송(B곡) ✧ 301/♪ 56 말은이
복음서(선다) 루가 10:25-37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56 다함께
봉헌성가 ♪ 278장/안드레히 다함께
예물기도 ✧ 256 말은이
성찬기도(1양식) ✧ 257
거룩하시다(C곡) ✧ 257 / ♪ 82 다함께
기념환호송(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 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C곡) ✧ 270 / ♪ 83 다함께
영성체(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다함께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은 성체성사로써 우리로 하여금 천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를 돌아보시어, 세상의 모든 위험 가운데서 지켜 주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 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71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553장 다함께

	이번 주일 성찬례 (7월 10일)		다음 주일 성찬례 (7월 17일)	
	9시	11시	9시	11시
집 전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설 교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구균하 신부	주낙현 신부
1독서	서정민	전병도	서정민	김경아
2독서	우영현	박남미	우영현	신환중
대 도	신명식	한재업	신명식	조진성
십자가	윤용환	차기성	박해웅	이용해
다음 주일 7월 17일	전례독서 창세 18:1-10 시편 15 골로 1:15-28 루가 10:38-42 성 가 입당 323장 봉헌 389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391장			
교 회 청 소	7월 16일 모니카회 4초 김난희 심순덕 윤영옥 이태훈 정은숙 주창남		7월 23일 G.F.S. 1초 정명옥 고아랑 김민숙 문해화 오현희 객은영 이윤나	